

묵묵히 국방업무 발전에 힘쓰는 모범군무원 격려

국방부, 하반기 선정 25명 장관 표창
근무 의욕 고취 위해 매년 50명 선발
가족과 제주도 전적지·명소 답사도

전후방 각지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방업무 발전의 초석이 되는 모범군무원 25명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방부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2025년 하반기 모범군무원 격려행사’를 개최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각 군 및 국직부대 소속 군무원 25명은 이날 장관 표창을 받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아울러 모범군무원과 이들 가족은 제주도로 향해 전적지와 명소를 답사한다.

국방부는 1995년부터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국가와 군에 헌신하고 있는 군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모범군무원 선발은 연 38명에서 2023년부터 연 50명으로 확대했다. 군무원 증가에



국방부가 23일 개최한 ‘2025년 하반기 모범군무원 격려행사’에서 김성준(맨 앞줄 가운데) 인사복지실장과 모범 군무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따른 것이다. 현재 군에는 4만6000여 명의 군무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은 “군무원은 국방행정, 군수 및 과학기술 등 국방 전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는 최상의 국방태세 구축의 핵심”이라며 “모범군

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해령 기자

K2 전차 주요 부품 ‘DQ마크’ 인증…수출 경쟁력 향상 기대감

우수 품질 정부 보증…ADEX서 수여식

세계의 관심을 받는 K2 전차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주요 부품에 정부가 우수 품질을 공식 보증하는 ‘DQ마크(D-efense Quality Mark)’가 찍히면서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23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 (서울 ADEX 2025) 방위사업청 통합홍보관에서 ‘DQ마크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K2 주요 부품 생산업체 30개사에 DQ마크 공식 인증서를 전달했다.

DQ마크는 국산 방산품목의 우수한 품질을 공식 보증하는 제도다. 국내기업의 기술력·품질·수출 잠재력을 종합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품질인증으로, 수출 경쟁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날 인증받은 대상은 총 321개 품목이

다. 모두 기품원이 수행한 엄격한 품질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K2 수출과 직결된 핵심 구성품으로, 유럽·중동·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과 협상 과정에서 신뢰성과 기술력을 더욱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범 기품원장은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품질이 중요하다”며 “DQ마크 인증은 우리 방산제품의 품질 신뢰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국방기술품질원이 23일 K2 전차 주요 부품 생산업체 30개사에 DQ마크 공식 인증서를 전달했다. 수여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품원 제공

진출을 가속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전방지역 초등생 대상 ‘금융스쿨’ 인기 뜨겁네…

육군·금감원, 군인자녀 대상 첫 실시

육군과 금융감독원이 협업해 진행한 ‘전방 군인자녀 금융스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스쿨은 매년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

고 있다. 지난해에는 400명 모집에 3400명이 지원해 8.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금융스쿨은 전방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1~9월 진행됐다. 교육은 온라인 강의와 현

장학습을 병행해 △화폐의 개념 △용돈 관리 △소비 의사결정 △저축·투자 등 기초 금융상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용돈 관리의 중요성’ ‘직업생활 탐구’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한국은행 방문’ 등 현장학습을 병행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양 기관은 내년부터 교육대상을 육군 전

부대로 확대해 더 많은 군인 자녀가 금융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차종희(준장) 육군본부 예산차장은 “금융스쿨은 군인 자녀들이 올바른 금융습관을 배우고, 가족이 함께 긍정적인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장병과 가족의 금융안정이 곧 군 전투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금융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합동교리 발전 방향 모색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합동대·군사문제연구원 공동 세미나
미래 전장 환경 선제적 대응 등 논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군의 합동교리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합동군사대학교(합동대)와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미래 전장 주도권 확보를 위

한 전 영역작전 기반 합동교리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최근 국제 분쟁 양상을 분석하고,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까지 확장된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으로 채워졌다.

김형철 KIMA 원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지금 안보 환경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

며 “단순한 역지력 차원을 넘어 변화된 미래전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보 군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군 등 주요국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한 다영역작전(MDO) 개념을 우리 안보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미나는 총 2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에서는 ‘미래 전장환경과 미래전 양상’을 주제로 최근 전쟁 양상 분석과 첨단 무기가 미래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제·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국방

연구원(KIDA) 김홍석 공군중령은 ‘러·우/중동전쟁 양상 분석과 미래전 함의’를, 육군3사관학교 박동휘 육군중령은 ‘첨단무기 및 전장환경이 미치는 미래전과 대비 방향’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미래전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 영역작전 기반 합동교리 발전 방향’을 놓고 합동대 홍민혁 육군중령이 ‘확장된 영역에서의 작전을 위한 한국군 교리 발전 방향’을, 한미연합군사령부 김기환 육군대령이 ‘연합사 연합·합동전영역작전(CJADO) 시행개념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임채무 기자